

## # 조성기,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이 작품은 17세기 후반 봉건사회의 신분질서가 흔들리면서 위기를 느낀 사대부들이 충, 효, 열을 통해 자기집단을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은 소설이다. 조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쟁탈이나 변경에서 해적과 싸우는 전쟁 등의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의 중심무대는 화진의 가정이다. 악한 처와 착한 첩 사이의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집안의 가장이 중심적 역할을 잘 하면 가문이 유지될 수 있고 악인들도 교화할 수 있다는 교훈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 ‘창선(彰善)’은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뜻이며, ‘감의(感義)’는 의리에 감복한다는 뜻이다. 반동 인물은 패망한다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 구성과는 달리, 반동 인물도 끝내는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구제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1. 줄거리

발단 - 명나라의 병부상서 **화옥**의 세 부인 심씨, 요씨, 정씨 중, 요씨와 정씨는 각각 딸(빙선)과 아들(진)을 낳고는 일찍 죽는다. 화옥은 심씨 소생의 장남 **화춘**이 용렬하여, 딸 빙선과 아들 **화진**을 편애하였다. 화춘이 상춘정에서 부친으로부터 앞으로 모든 것을 화진으로부터 배워서 행동하라는 질책을 받자, 이로부터 밤낮으로 이를 갈면서 화진을 괴롭힌다. 그러나 과부가 되어 집에 와 있는 **성부인**(화옥의 누이)의 위엄에 불만을 표면화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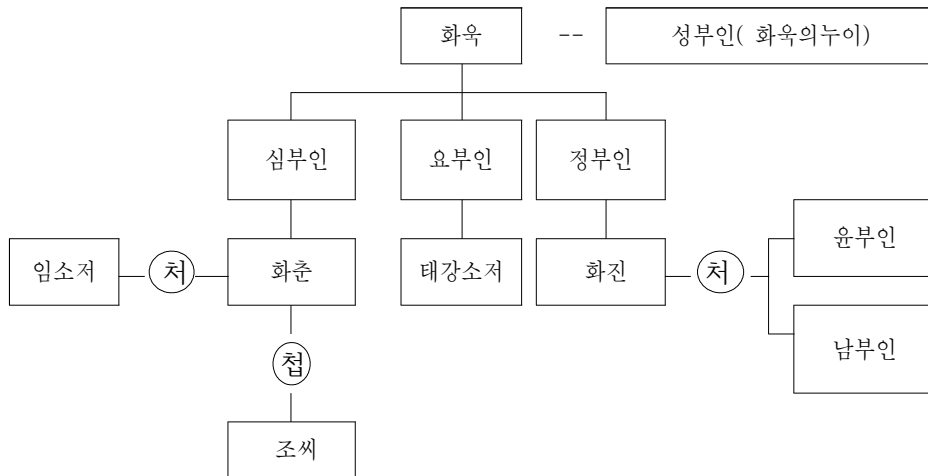
전개 - 간신 **엄송**이 득세하자 화옥은 사직하고 낙향했는데, 이 때 춘은 부덕을 갖춘 **임 소저**와 혼인한다. 화옥은 진의 배필로 **윤 소저**와 **남 소저**를, 빙선의 신랑으로 유 공자를 정해 놓고 성 부인에게 혼사를 부탁하고 죽는다. 성 부인이 집을 비우자, 심씨와 춘은 진과 빙선을 학대하였으나 그들은 조금도 노여워하지 않았다. 성부인이 돌아와 진과 빙선을 각각 성례시켰으나, 심씨는 진의 부인 윤, 남 두 소저를 미워하였고, 춘은 방탕해져서 불량배인 **범한**, **장평**과 사귀면서 임 소저를 내쫓고 간사한 **조씨**를 정실로 삼았다. 이때 진과 성 부인의 아들 성준, 빙선의 남편 유생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있었다.

위기 - 심씨는 조씨와 결탁하여 **남 소저**를 독살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동생의 출세를 시기하던 화춘은 불량배와 결탁하여 윤리와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진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그의 아내도 누명을 씌워 내쫓는다. 조씨가 범한과 간통을 하자, 춘은 장평과 짜고 그들을 얹애고 윤 소저를 엄송의 아들에게 주려 하였으나, 윤소저의 동생이 어사가 되어 악당들을 처벌한다.

절정 - 한편 화진이 유배지에서 도사인 **곽공**을 만나 병서를 배우고 있을 즈음에 해적인 서산해가 변경을 크게 소란하게 하므로 화진이 백의종군하여 해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운다. 화진의 능력을 인정한 조정에서는 그를 정남대원수에 임명하여 남방의 어지러움을 모두 평정하게 한다. 화진이 남방을 평정하고 개선하자 천자는 그에게 진국공의 봉작을 내린다.

결말 - **심씨**와 **춘**이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흠어졌던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와 가문이 화락하게 된다.

## 2. 가계도



## 3. 중요 지문

하루는 조씨가 느닷없이 비춘정에 들이닥쳤다. 마침 남부인이 자리에 있었다. 조씨가 윤부인에게 말했다.

“이 집에 대대로 전해오는 귀중한 보배 두 가지가 있다가지요? 집안일을 맡아 하는 며느리에게 준다고 하더이다.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며느리 임씨는 자질이 부족하여 주시지 않으셨고, 백화헌 상자 속에 감추어 두셨다가 두 아우님께 나누어 주셨다더군요. 그대들은 둘째 며느리인데 외람되게도 종가의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 명분에도 어긋나고 가문의 기강도 무너질 일입니다. 임씨가 인륜을 어지럽히는 바람에 바른 도리를 논할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 집안도 평온해졌고 질서도 잡혔으니 적자와 서자의 분별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집안에 대대로 전해지는 물건은 이제 부인들과는 상관이 없지요.”

윤부인이 다 듣고 나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원래 그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보물 이름이 무엇이라던가요?”

“하나는 홍옥패인데 할아버지이신 동국후께서 금릉을 치실 때 순성마황후 고부인께서 주신 거라더군요. 다른 하나는 청옥패인데 고조 되시는 동국공께서 남방을 평정하실 때에 교지왕이 폐물(敝物)로 주신 것 중에서 제일 귀한 보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끼고 보호하며 반드시 덕이 있고 공경을 갖춘 며느리에게 전해 주기로 했다더군요. 우리 시어머님께서도 덕과 공경을 아름답게 갖춘 분인데, 옥패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옥패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대들의 차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잘못입니까? 어찌 안타깝지 않겠어요?”

윤부인은 즉시 상자를 열고 꺼내 주었다.

“밝으신 가르침이 마땅합니다.”

조씨는 옥패를 손에 들고 두세 번 만지더니 얼굴에 기쁜 기색이 가득했다. 남부인은 정색을 하고 단정히 앉아 묵묵히 말이 없었다. 끝내 옥패를 내어 줄 뜻이 없었던 것이다. 조씨는 화가 나서 분을 머금고 가 버렸다. 남부인이 윤부인에게 말했다.

“두 개의 옥은 우리가 받은 신물입니다. 어찌 군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까?”

윤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군자께서도 스스로를 보전하지 못하시는데 우리 일로 심려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보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옥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조씨가 정당에서 왈차지결하게 임소저의 허물을 말하고 있었다. 윤부인은 들어도 못 들은 척했지만, 남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정색하여 말했다.

“남자는 장부의 총애만 믿고 말씀이 무례합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난초에 불이 붙으면 같은 식물인 혜초도 슬퍼하고, 토끼가 죽으면 같은 동물로서 여우도 슬퍼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까? 같은 여자

이면서 임부인의 불행에 대해 그런 심한 말을 하시다니요?”

놀라고 겁난 조씨의 표정이 변했다. 심부인은 매우 노해 남부인을 꾸짖었다.

“저 애가 큰며느리의 자격이 분명한데 너희가 어찌 감히 남자라고 부르는 게냐?”/남부인이 자리를 옮겨 사죄하며 말했다.

“입에 익은 말이라 갑자기 고치지 못하여 엄한 가르침을 받게 되니 황송하옵니다.”

안타깝다! 남부인의 깨끗하고 우뚝한 성품은 그 아버지의 품모와 절개를 닮아서 말씨도 당당하구나. 조용하고 화해로운 윤부인의 성품과 달라 더 큰 화를 입게 되겠구나.

하루는 심부인이 윤부인, 남부인과 함께 수를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진의 유모 계화가 울면서 들어왔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이 무슨 연고입니까?”

심부인이 놀라고 두려워 그 연고를 물었다.

계화는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조정에서 우리 화한림의 직첩을 거두시고 남부인 작은 마님을 소실로 삼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마을 아전이 작은 마님의 직첩을 거둬가려고 왔습니다.”

조씨는 기뻐 날뛰며 남부인에게 말했다.

“남자의 교만도 이젠 그만이구려. 그래도 분에 넘치는 청옥패를 갖고 있을 셈이요?”

남부인은 다 듣고 나서도 안색을 흐트리지 않고 태연히 수를 놓았다. 윤부인은 눈물을 금치 못했다. 이윽고 화춘이 들어와 고했다.

“대관이 화진이 불효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천자에게 고하여 직위를 빼앗아 서인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또 남부인은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의 딸이니 재상가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소실로 강등시켰답니다.”

심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진이 교만하고 방자하더니 천도가 바로잡혀 죄를 받게 되었구나.”

**[중략 줄거리]** 조씨로 인하여 남부인과 윤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나, 각각 지인들의 도움으로 구출된다. 모함과 독살 등의 계교를 꾸민 조씨의 무리는 옥에 갇히고, 그들의 꾀임에 빠졌던 화춘 역시 옥에 갇힌다. 반면, 화진은 그의 진심을 믿고 알아 준 벗들에 의해 옥에서 풀려나 무술을 익혀 해적인 서산해를 토벌해 큰 공을 세운다.

심부인은 잘못을 뉘우친 뒤로 태강소저를 금이나 진주, 보석처럼 아끼며 앉거나 누울 때조차 한시도 잊지 못했다. 밤낮으로 화진을 생각하느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중 화진이 남방을 평정하러 간다는 첩서가 황제에게 보고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쁜 기색으로 하늘에 축수했다.

“진이가 돌아오는 날이 춘이가 살아나는 날이로다.”

그러나 화진이 도중에 군사를 돌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몹시 실망했다. 그때 박진규가 화진의 서찰을 전해 주었다. 심부인이 그 서찰을 다 읽고 나자 눈물이 앞을 가렸다. 태강소저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인자하지 못해 이런 현명한 자식을 저버렸으니 손을 물어 피를 내도 후회가 막급이구나. 진이 오히려 자기에 게 죄가 있다고 자처하며 내가 덕이 있고 형이 원통하다고 말하니, 내가 뉘우친 줄 모르고 예전 같은 줄 아는가 보구나. 하늘로 가는 다리가 있다면 도망가고 싶구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지하에 숨고 싶구나. 내 어찌 얼굴을 들고 진을 대하겠느냐?”

**[앞부분의 줄거리]** 병부 상서 화옥에게는 세 부인 심 씨, 요 씨, 정 씨가 있었는데, 화옥과 그의 누이인 성 부인(춘의 고모)은 심 씨 소생인 장남 춘이 용렬하므로 그보다 정 씨의 아들 진(한림)과 요 씨의 딸 빙선을 편애하였다. 자녀들이 자라자 화옥은 춘을 정숙한 성품의 임 소저와 혼인시키고, 진의 배필로 윤 소저와 남 소저를 삼았다. 그런데 화옥이 죽자, 심 씨와 춘은 진과 그의 아내들을 학대하였다. 그리고 춘은 조 씨를 첩으로 삼았다.

조 씨는 임 씨를 몰아내고자 하여 주야로 춘에게 참소하니, 춘이 마침내 말하기를,

“임 씨의 죄는 족히 내가 짐작하되, 진이 필경 말을 할 것이요, 또 임 씨의 성품이 강정하니<sup>1)</sup>, 무슨 괴변이 생길까 두려워하노라.”

조 씨가 박장대소하며 말하기를,

“상공은 형이요, 한림은 아우라. 형이 그 아내를 내치는데 아우가 어찌 감히 간섭하며 또 설혹 임 씨가 스스로 죽는다 하더라도 상공께 해됨이 없거늘, 상공이 한 추부(醜婦)를 저어하여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을 결단치 못하니, 첩은 그옥이 상공을 위하여 애석히 여기나이다.”

춘이 오히려 머뭇거리기를 마지아니하더니, 하루는 범한과 장평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꾀를 결단한 후, 죽우당에 이르러『사기』한권을 빼어 보는 체하다가 책을 덮고 진더러 묻기를,

“옛적에 한나라 무제는 진 황후의 투기함을 능히 알고 폐하였으니, 그 임금의 일이 어떠하뇨?”

진은 형의 흥계를 알지 못하고, 바른 대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남자는 양덕이요 여자는 음덕인고로 양덕이 음덕을 이긴 연후에야 집안의 규범이 정해지니, 한무제는 본디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본처를 폐한 것이지마는 여자의 투기는 칠거지악<sup>2)</sup>이기에 이로써 내쳤나이다.”

춘이 대희하여 뛰어 들어가서 심 씨에게 말하기를,

“임 씨의 죄악은 소자가 이미 분명히 알고 있는 바로되, 지금까지 참고 내치지 아니함은 고모의 총애하심이 너무도 편벽되고, 또 진이 임 씨의 편당<sup>3)</sup>인 연고려니, 이제 진의 말이 여차하고 또 고모는 복건에 가고 없으니, 이때를 타서 임 씨를 내치고 조 씨로 정실을 삼으려 하나이다.”

심 씨는 놀라서,

“임부의 죄는 불과 남편을 잠자리에 들이지 않는 것뿐이니 어찌 투기가 있으리오. 또 나의 정들이 굳으니 가히 흔들리지 못하리라.”

하고 결연히 대답하더라. 춘이 재삼 간청했으나, 심 씨는 종시 듣지 않으려 하더라. 조 씨는 시녀 난수라는 녀으로 하여금 범한을 내통하여 꾀를 내고, 계행 등과 결탁하여 악하고 더러운 물건을 심 씨의 침소에 많이 묻고, 또한 계행 등으로 하여금 그 흥물을 파내는 체하여 심 씨에게 말하기를,

“임 씨의 소행이라!”

심 씨는 그제서야 대로하여 임 씨를 꾸짖고 밖으로 내치니, 비복 등이 실성하여 울며 윤 부인과 남 부인이 하늘을 향해 크게 탄식하고, 진이 갓을 벗고 맨발로 계하에서 통곡하니, 심 씨는 또 크게 노하며 말하니라.

“임 씨의 죄악이 위나라 황후보다 더한지라! 공연히 장부를 거절하여 잠자리에 들이지 아니하니, 춘이 이미 궁형지인<sup>4)</sup>이 아닌즉 어찌 통분치 않으며, 또 조 씨가 들어온 후로 임 씨의 투기는 날로 심하여 천고에 없는 요사하고 간사한 변고가 나의 침방에까지 미치니, 어찌 참고 내치지 아니하리오!”

진이 슬프게 울고 간하고, 머리를 땅에 부딪쳐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심 씨가 꾸짖으며 소리치기를,

“내가 내 며느리를 내치는데, 무슨 상관이나!” <중략>

이날 임 씨가 집을 걸어 나와 장차 교차에 오를 새, 화옥의 사당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재배하며 하직하고, 개연히 가마에 오르매, 유모와 시비 등이 울며 뒤를 따르더라.

이때 화옥 집안의 사람이 심 씨 모자와 조 씨 외에는 눈물을 아니 흘리는 자가 없었고, 이때에 임 씨의 오라비 임윤이 벼슬을 빼앗기고 하남 본택에 와 있오매, 임 씨는 하남으로 돌아가니라.

춘이 크게 위의를 베풀고 종족을 모아 장차 조 씨를 세워서 정실을 삼으려 하거늘, 진이 통곡하며 충고하기를,

“제나라 환공의 맹세에 가로되, 첩으로써 정실을 삼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형님이 이유 없이 현명한 처를 내치고 미천한 여자으로써 외람되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하니, 욕됨이 이보다 더함이 없으리로소이다.”

“너는 두 처가 있거늘, 내가 홀로 처 하나만 두지 못하랴!”

하고, 춘은 성을 벌컥 내며 소리를 지르더라.

그가 마침내 조 씨를 정실로 삼으니, 조 씨는 양양자득<sup>5)</sup>하여 행동거지가 망측하여 치마 끝에 바람이 나며, 우둔한 지아비를 농락하여 간특한 교태와 발연한 노색으로 희희낙락하니 춘은 분주승명<sup>6)</sup>하여 발이 땅에 붙지 않는지라, 비복 등이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일일이 임 씨를 사모하니라.

이러므로 집안이 해이하여 기강이 전혀 없더라.

[어휘 풀이] 1) 강정하니 : 굳세고 바르니. 2) 칠거지악 :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시부모에게 불손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등이 있다. 3) 편당 : 한 편의 당파. 4) 궁형지인 : 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을 받은 사람. 5) 양양자득 : 뜻을 이루어 뽐내며 꺼드려거림. 또는 그런 태도. 6) 분주승명 : 명을 받드느라 바빠서 겨를이 없음.